

# 추계예술대학교

## 2023년도 제5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구성단위	의원정수	재적의원	참석의원
교원	2	2	2
직원	1	1	1
학생	3	3	2
외부	1	1	0
계			5

1. 일 시 : 2023년 7월 26일 (수) 11:30~12:10

2. 장 소 : 창조관 8층 소회의실

3. 출결사항

- 참석위원(5인) : 서영덕 위원장, 최영걸, 임서우, 김한별, 이동현
- 결석위원(2인) : 홍현주, 이수현

추계예술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규정에 의거하여

- 1) 위원 여러분께 회의 개최 7일전 통지와 회의자료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 2)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3) 전차 회의록 공개와 본 회의 개최에 관련한 제반 규정이 적절하게 준수되었음을 회의 참석 위원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4) 이에 위원을 대표하여 학생 위원이 자필로 사인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학생 대표	임서우
학생 대표	김한별

4. 부의안 2023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 1차(안) 심의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 정현주 간사 위원출석 점명에 이어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 참석으로 2023년도 제5회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위원	위원	위원
서영덕	최영걸	이동현

나. 개회

- 서영덕 위원장 참석해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 인사 후 안건 상정하다. 간인 서명인을 협의하여 3명 정하다.

다. 부의안 2023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 1차(안) 심의

- 서영덕 위원장 안건 상정하고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다.

(기획팀 예산담당 정재민) 자세히 설명하다.

- 서영덕 위원장 수입, 증가 부분 원인은 본 예산 수립 시 보수 예산을 줄여 수입에 대응해 성립했고, 1차 추경부터 지출 예산을 산정하였고, 유학생 등록금 수입 감소, 작년 보수 미지급금을 이월하여 지급한 부분 등을 반영하였다. 작년 대비 10억 정도 규모 증가하였다. 올해는 36억정도의 적자 예상하고 2022학년도는 법인 전입금의 이월이 있었다.
- 최영걸 위원 추경에서 지출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이해하다.
- 서영덕 위원장 기부금, 감사료, 급여 잔금으로 증가했다.
- 이동현 위원 47억 부족은 잡수입에 반영 한 것인가?
- 서영덕 위원장 잡수입과 기부금에 반영하다. 올해 교직원 기부 학기별 15% 예상하고 있다.
- 최영걸 위원 예상 금액이 10억인가?
- 이동현 위원 37억 계획과 법인과 교감 여부를 질문하다.
- 서영덕 위원장 법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구체적 비전에 대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여 처장단이 준비 중으로 8월에 법인에 얘기하려고 한다. 다만, 사학법 개정에 따라 대안 가능성은 있고 발전계획 상 비전을 가지고 현금 확보 방법에 대해 제안해야 한다.
- 최영걸 위원 적자 폭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자료가 매년 있었고, 3년전부터 부족 현실이었고, 혁신사업비 받은 금액중 15%정도를 임금으로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가능한가?
- 서영덕 위원장 혁신사업비 지침 문구 데로는 못한다. 당시는 본부쪽 인건비만 생각했는데 혁신사업단 내 인건비도 포함이다. 올 해 사업비 중 평가를 통해 가감이 될 수 있다.
- 이동현 위원 혁신사업비가 없었다면 적자가 더 난 것이 아닌가?

위원	위원	위원
서영덕	최영걸	이동현

- 최영걸 위원 임금에 대해 부족 금액이 나중에 발표되고, 재단에서는 임금삭감, 부족현황 이런 부분을 교직원 임금 해결 방안 방법을 보고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이 상황에 너무 익숙해 진 것이 아닌지.. 선후 관계가 맞는것인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운영자는 심각한 형사적 법적 책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가?
- 서영덕 위원장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2021학년도에 법인전입금을 학교에 투입하면서 교직원들의 기부 등 논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도 있다,
- 최영걸 위원 의지의 문제, 소통이 필요하다, 과연 경영자는 이 조직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것인가의 고민이 있겠지만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 기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급여 체불시 약정서 징구 등의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소통을 통해 이런 저런 사유가 있어서라는 설명후에 공감을 유도함 좋은데 아쉽다. 노조는 사인을 했는지 궁금하다.
- 서영덕 위원장 서약서 방안은 감사중에 급하게 정해진 것으로 안다.
- 이동현 위원 임금 부분은 우리가 사인을 해도 기관 직권으로 고발이 가능하고 노조에서는 아직은 학교와 적대적인 입장으로 악화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사인을 했다. 우리 조직의 문제는 주인이 없다는 거다. 주인이 미안하지만 해결 방법을 제시하거나 개인 희생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반대로 계속 여기 다니고 싶으면 참아라나 급여 조정을 보고 그럼 계속 운영을 해볼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반대로 경영진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구성원을 설득해야 하고 수년에 걸쳐 경험으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경영권을 내놓겠다든지 해야 하는데, 얼마를 움직일거냐를 묻는 것은 이상하다. 총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하고 구성원과 같이 움직여서 총장직을 더 할지, 방법과 계획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산서를 가지고 압박을 받고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주인이 나서야 한다. 타 대학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3, 4개월 급여를 기다리냐고 한다, 이제 위기 돌파를 위해 주인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게도 미안한 입장이다. 학생 서비스 질, 교수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이 현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주인이 나서서 해결할 입장이다.
- 최영걸 위원 47억이 내년에 0이 되어야 하는가?
- 서영덕 위원장 2달치 급여부터 즉 15억 적자까지는 감안 할 수 있다.

위원	위원	위원
서영덕	최영걸	이동현

- 이동현 위원 적자금액 0을 안 만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교육부 입장은 계속 바뀌고 내년을 생각하면 0으로 시작해야 한다.
- 서영덕 위원장 법인자산 능력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고, 사학법 개정에 기대를 걸어 본다.
- 이동현 위원 물리적으로 어렵다. 주인이 나서 사재를 움직여야 직원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구성원 설득할 수 없다.
- 최영걸 위원 급여 삭감이 현실적이지 않나?
- 이동현 위원 삭감되면 복원될 수 없다, 사학연금등에 영향을 준다.
- 최영걸 위원 그런 단점에도 구성원간 위화감이 적어지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부는 자유의지로 다 하지 않을 수 있다. 모두 동일한 어려운 상황을 감내한다고 하면 내부 갈등 요소를 없을 것 같다,
- 이동현 위원 삭감일 경우 개인별 협의와 계약을 해야 한다, 기부금도 개인별로 움직이는 것은 동일하다. 책임자가 이만큼 하겠다 미안하다 해야 분위기가 되어서 아름답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간다.
- 간사 정현주 (위원장 허가로 발언하다.) 학생 위원분들께 보고하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 약 15억, 올 해 17억여원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지원 받아 실험실습, 공간 개보수, 교수학습, 취창업, 상담 등 교육지원 및 전공 능력을 융복합 교육으로 경험을 확대한다든지 하여 학생들께 피해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산단에서는 1억 9천만원을 재정 지원 받아서 '예비 예술인 사업'을 하는 등 교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경험은 더 확대되었고 내년도 그러하리라고 불안해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하다.
- 이동현 위원 학생들도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않지만 학교 상황을 재정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간사 정현주 맞는 말씀이고, 그러나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진 사람이 결국 희망의 고지에 다다르는 것이고 불행한 것만을 생각하면 결국 마이너스 지점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획팀과 센터들은 몇 년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좌절하지 않고 일해서 기본역량진단과 혁신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어려운 현실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장착하고 문제를 직시하자는 의미로 발언 드린다.

위원	위원	위원
서영덕	최영걸	이동현

- 이동현 위원 구성원 대상으로 7월인지 8월인지 발표는 언제인가?
- 서영덕 위원장 사무처장과 논의중으로 대략은 향후 6년정도 법인은 100억, 우리는 40억 정도 하고 사학법 개정에 따라 갈 수 있는데 8월 초나 중순 정도면 30프로 정도는 말씀 드릴 수 있다.
- 이동현 위원 법인책무성 재차 강조 드린다. ‘
- 최영걸 위원 임금 부분에서 1년에 40억인가?
- 서영덕 위원장 6년 정도에 140억 정도다.
- 최영걸 위원 임금 문제 등 적자는 지속적인데 교수의 수업의 질도 고려해야 하고, 전에 제안한대로 학생분들 없이 교수와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소규모로, 리사이틀홀 규모 말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존속 여부를 떠나 운영자의 의지가 진짜 이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꿈을 펼치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더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상이든 필리버스터 등 필요하다.
- 이동현 위원 우리도 2, 교수 2, 처장 등 10명 정도 제안하다.
- 서영덕 위원장 법인국장을 포함하여 대표성 있는 소규모 대화의 자리를 준비하겠다.
- 서영덕 위원장 주신 의견에 감사 인사 후 원안 가결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다.
- 이동현 위원 동의하다.
- 임서우 위원 외 전체 위원 재청하다.
- 서영덕 위원장 원안 가결을 선포하다.

## 7. 폐회

- 서영덕 위원장 기타 의견이 없어 2023년도 제5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무리하고 12:10분경 폐회를 선언하다.

위원	위원	위원
서영덕	최영걸	이동현

2023. 7. 26.

기록 간사 정현주



위원장

서 영 덕



교수위원

최 영 곁




학생위원

임 서 우



학생위원

김 한 별



직원위원

이 동 현



위원	위원	위원
